

커버스토리

국민과 함께하는 '2018 세계 임상시험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는 '세계 임상시험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18일(금)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2018 세계 임상시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임상시험의 날은 영국 해군의 군의관 제임스 린드(James Lind)가 항해 중 많은 선원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괴혈병을 치료하기 위해 1747년 5월 20일 선원 12명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임상시험을 실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행사장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

세계 임상시험의 날을 맞아 그간의 한국 임상시험의 발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환경 조성 과 국내 임상시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임상시험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희귀질환 환자단체인 '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 협회'와 관·산·학·연을 아우르는 임상시험 관계자, 임상시험 유공자들과 환자 등 100명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세계 임상시험의 날의 유래와 이를 통해 임상시험 의의와 가치를 되짚어 보는 동영상 시청으로 막을 올렸다.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이 환영사로 참석자들을 맞았으며,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 그리고 행사에 특별히 초청된 '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 협회' 김진혜 이사의 축하 메시지가 전달됐다.



[환영사로 참석자들을 맞이하는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

커버스토리

이어서 '2018 세계 임상시험의 날 유공자 포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임상시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펼쳐온 임상시험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인 임상시험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국장이 시상자로 나섰다.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강현숙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장인진 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태원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라선영 교수, 전 퀀타일즈 코리아 현미숙 지사장 등 총 5명이 임상시험 분야의 발전 및 수행 역량 제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으며 2018 세계 임상시험의 날 유공자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8 세계 임상시험의 날 유공자 포상 시상식 기념촬영.
(왼쪽부터) 장인진 교수, 김태원 교수, 강현숙 교수, 양성일 국장, 지동현 이사장, 라선영 교수]

'임상시험 사랑 콘텐츠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일반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임상시험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자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는 웹툰, 사진, 참여수기 3개 부문에서 총 49개의 작품이 응모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으며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3개 부문에서 대상 2명, 최우수상 2명, 장려상 6명 등 총 10명이 수상자에 선정됐다. 웹툰 부문 대상 수상작인 '누군가에게는 사랑'은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의미를 되짚었으며, 참여수기 부문 대상 수상작 정혜경 씨는 소감을 통해 임상시험으로 되찾은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직업 선택까지 결정하게 된 어머니의 임상시험 참여 사례를 소개하며, 많은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상을 비롯한 각 부문 수상 작품들은 본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임상시험포털(K-CLIC)의 '참여정보-임상시험 공모전 수상작'에서 감상할 수 있다.



[2018 임상시험 사랑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기념촬영]

커버스토리



[2018 임상시험 사랑 콘텐츠 공모전 웹툰 부문 대상 수상작 '누군가에게는 사랑' 中]

한편, 이날 행사는 특강과 축하공연 다양한 부대행사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들이 함께 제공되어 참석자들의 임상시험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방영주 교수는 그간 한국 임상시험의 성장과 발전을 살펴보는 '한국의 임상시험'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어서 서울대 의과대학 아카펠라 동아리 MOCA와 전 동물원 멤버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김창기 씨가 축하공연을 펼치며,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커버스토리



[특별강연 중인 방영주 교수(좌)와 축하공연을 펼치는 김창기 씨(우)]

이와 함께 행사장 외부에서는 환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홍보 부스와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운영되었으며, 캐리커처와 캘리그래피 그리기 이벤트 등 임상시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는 세계 임상시험의 날 기념행사가 환자들에게 희망의 불빛인 임상시험의 가치와 의미를 공감할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나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병원, 산업계 등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행사장 홍보 부스 사진]